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이용우

소비주의의 천국

자본주의 제도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부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본주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 비하여 제도적으로 우월하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부를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자본주의의 우월성과 함께 부를 지배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함의 가치나 자본주의 이외의 가치에는 크게 무게를 두지 않는다. 그러나 학문적으로는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가 우월의 관계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보완의 관계이다.

가령 물질 자본주의의 절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주의, 소비 만능이 불러오는 다양한 계급적 갈등의 문제나 자원 고갈, 생태학적 이슈들은 우리들에게 자본주의의 제도적 보완을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물질 중심의 가치가 생산해온 풍요와 함께 상대적으로 증대한 낭비의 이슈가 그러하다.

쓰레기통의 문명, 쓰레기통의 사회학으로도 표현되는 낭비의 문제는 이제 "소비는 허락하지만 무엇을 버리는가는 자유롭지 않다"고 표현될 정도로 사회학적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다. 즉 쓰레기통이 도덕적 이슈가 된 것이다.

뚱뚱한 몸매와 날씬한 몸매 사이에는 체격의 차이와 몸무게의 차이가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부여하는 가치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한다. 무엇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 단순히 인식의 차이인가, 아니면 강박관념인가?

육체는 정신에 봉사하도록 설계된 신학적 가치가 거꾸로 사람은 육체에 봉사하여야 한다는 조항으로 바뀐 듯하다. 모두가 날씬해지기 위하여, 흉하게 보이지 않기 위하여 육체 관리인으로 변한다. 그리고 육체를 관리해주는 의사는 오늘날 흡사 성직자의 지위를 누린다. 육신소비주의의 절정인 것이다.

통계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육체를 관리하는 것보다 아름다움을 위하여 육신을 관리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졌다. 통통함과 뚱뚱함이 미학적으로 아름다움의 표상으로 인식되던 시대도 엄연히 존재해왔다.

고대의 상징적 인체 조각상들이나 회화 작품들은 대부분 통통하거나 뚱뚱하다. 다산의 상징도 있지만 메마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기 위하여 건장하고 통통한 인간미를 가꾸어왔다. 오늘날 이러한 미적 가치는 완전히 어불성설이 되었다. 미를 위하여 생사에까지 모험을 거는 의학적 시술이 성행하는가 하면 그 후유증이 사회문제가 되지만 미를 위한 모험심은 그치지 않는다.

프랑스의 철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하층계급과 유복한 계층 사이에는 육체와 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차이가 있음을 강조한다. 가령 의약품의 절반은 보험의 가입 없이도 구입할 수 있지만 질 높은 건강을 위해서는 보험이 반드시 적용되는 의사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의료의 실재 효과보다는 의사를 만난다는 의식적이고 공회적인 소비가 행해진다고 본다.

그러므로 서민은 약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고 유복한 계층에서는 의사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의사와 약은 치료기능보다 심리학적이고 문화로서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늑대소년이 나타난 것은 소년이 늑대들과 함께 생활하여 마침내 늑대가 되었기 때문이다. 늑대들이 하는 행동을 배웠고, 늑대가 생존하기 위한 온갖 기능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늑대소년은 사람 모습을 하였지만 사실은 늑대로 변한 것이다. 사람으로 태어났어도 사람의 짓을 배우지 못하면 불행하지만 사람이 아닌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을 스스로를 '소비인간', 또는 소비형 인간으로 부른다. 상품에 둘러싸여 상품과 함께 생활한 끝에 마침내 상품화된 소비인간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이 사람에 둘러싸여 살지 않고 상품에 둘러싸임으로써 '물질인간'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생태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상품 중심, 소비사회는 지구의 자원을 고갈시키는 것은 물론 풍부함이 주는 물질의 마력으로 인하여 본질이 훼손되는 가치의 역전이 심각하다. 과잉의 누적, 아름다운 희소성의 소멸, 호화로운 '꿈의 나라' 등장 등은 경전에 묘사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아니라 상표와 지폐가 난무하는 소비의 마당이 된 것이다.

〈광주비엔날레 상임부이사장〉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광주시교육청 시설공사 횡포 지나치다

광주시교육청과 각급 학교가 시설공사를 발주하면서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횡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 같은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거의 관행화됐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에 따르면 시교육청과 동부·서부교육청, 산하 학교가 발주한 시설공사에서 불공정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공사를 발주하면서 특정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강요하는가 하면 내역서에도 없는 추가공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일부 공사에서는 현장에도 가보지 않고 설계가 이뤄져 공사 부지가 설계도면과 절반 이상 다른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어느 학교는 특정업체 자재를 구입하도록 해 시공업체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비싼 가격에 자재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이 밖에 발주처 공무원과 신기술 등록업체 등이 사전 협의 후 공사를 고지하거나 소액공사 감리누락, 비현실적 단가 등 불공정 행위가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불공정 사례를 보면 학교공사에서 비리와 부실이 끊이지 않은 이유를 알 만하다. 전문건설협회의 일방적인 주장이기는 하지만 특정업체 몰아주기, 형식적인 설계 등은 비리와 부실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데 있다. 전문건설협회가 3년 전 시교육청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전달했지만 아직껏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기관의 개선 의지가 없다면 공정거래위나 사법당국이 나서는 수밖에 없다. 불법행위에 대한 명백한 제보가 있는 만큼 조사나 수사에 착수해 진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 이번에도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간다면 이는 현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사회'는 단순한 구호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洑까지 포함된 영산강 '8景' 당장 철회해야

〈보〉

정부 기관의 현안에 대한 판단이 과연 이 정도인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영산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강 주변 경관을 즐길만한 '8경(景)'에 논란거리인 승천보(洑)와 죽산보까지 끼워 넣었다니 하는 말이다.

익산청에 따르면 영산강의 지역명소 가운데 목포 '하구언'과 나주 '곡강 및 식영정', 절경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석관정'과 '나주평야', 역사문화가 숨 쉬는 '풍영정'과 담양의 '대나무 습지', 그리고 현재 4대 강 사업으로 추진중인 죽산보와 승촌보 등을 포함시켜 8경에 선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일부 시·도민들이 현재 건설중인 죽산보와 승촌보를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여기고 있는 마당에 관광명소에 포함시킨 것은 주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영산강 수변 생태공간 조성은 생태하천과 습지 등 기존 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전거 길·전망대 등을 갖춰 지역 주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한 사업이다. 따라서 익산청이 관련 지자체와 지역의 문화 전문가, 환경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자, 또 그렇게 해야 맞다. 그럼에도 주민 설명회를 무시한 채 사전에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치지 않는다.

우리는 4대 강 가운데 영산강을 '생명의 강'으로 되돌릴 수 있다면 설사 일부 개발이 되더라도 수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영산강 유역은 퇴적토가 쌓여 강바닥이 주변의 평지보다 높은 천정천인데다 수질이 4~5급수 이하로 떨어져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지 이미 오래다.

영산강의 부활은 생태계를 어떻게 살리느냐에서 출발해 한다. 치졸한 발상으로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화를 자초하는 일이다. 영산강 8경이 당장 철회돼야 하는 이유다.

의료 칼럼

강채미

명절 증후군

명절 전후로 머리와 가슴이 짓눌리고, 소화도 안 되고, 손발마비, 가슴 두근거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주부들이 늘어난다.

시댁과 친척들에게서 겪을 정신적, 육체적 피로에 스트레스가 더하면서 몸이 아파옴과 동시에 우울증까지 드러내는 스트레스성 질환인 '명절 증후군' 탓이다.

명절 전후 2~3일에 가장 심하고 명절이 지나고 나면 대개 풀리는데, 2주 이상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부 우울증으로 진행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명절 증후군 예방을 위해서는 남성들이 설 연휴 동안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 적극적으로 아내를 돕고 긍정적인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게 좋다.

명절 연휴 동안의 흐트러진 생활 리듬과 도로 위에서의 교통 체증은 몸을 젖은 솜뭉치처럼 무겁게 만든다. 피로로 인해 입맛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낮에도 꾸벅꾸벅 졸기 일쑤.

아로마 요법이 피로를 푸는 방법이 된다. 욕조에 물을 받아 로즈마리와 제라늄을 3방울씩 타서 입욕하면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몸이 편안해진다.

가벼운 감기몸살 기운까지 나타났다면 라벤더 5~6방울을 넣고 입욕하면 된다. 일상 복귀에 대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 베르가못, 카모마일, 라벤더, 로즈, 재스민 가운데 한두 가지를 섞어 사용한다.

연휴 동안 수면 패턴이 바뀌면 일상 복귀 후 낮 졸림증이 심해지고, 밤에 잠이 안 오는 불면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방치하면 불면증이 일상화될 수 있으므로 둥굴레차와 산조인차에서 해법을 찾아본다. 둥굴레와 야생대추의 씨를 말린 산조인은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 불면증과 정신불안을 진정시킨다. 둥굴레는 보리차처럼 엷게 끓여 마신다.

백합 20g, 볶은 산조인 40g에 물 2사발을 붓고 2시간 정도 달인 뒤 3분의 1로 졸면 하루 3~5회 나누어 마신다. 짠 음식, 커피, 홍차 등 카페인 음료, 술은 피한다. 침구를 파란색 계열로 바꿔주는 것도 좋다. 파란색은 불안정한 시각을 안정시켜 주어 혈압을 떨어뜨리고 마음을 가라앉혀 줌으로써 안정된 수면 분위기를 조성한다.

주부의 경우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고된 부엌일 때문에 근육통이 생기기 쉽다. 이럴 때는 전통적인 민간 통증 치료법인 찜질로 회복을 꾀해본다.

늙은 호박을 이용한 찜질이 도움이 된다. 늙은 호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근육 구석구석에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근육 피로를 빨리 풀어준다.

늙은 호박을 껍질째 쪄서 으깬 것을 거즈에 싸서 조금 식으면 아픈 부위에 바른다. 호박 거즈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것으로 바꿔 한번 더 붙여준다. 이를 하루에 2~3회 실시한다. 특히 어깨와 목선에 근육통이 느껴지는 경우에는 생강찜질이 좋다. 생강 15g과 양파 반쪽을 강판에 갈아 일본된장과 섞어 거즈에 싸서 환부에 붙이면 된다.

오랜 시간 음식을 준비하다 보면 팔과 어깨를 많이 쓰게 되고 어깨도 자주 결리게 된다. 이때 목 뒤 끝 부분과 어깻죽지의 중간 부분인 '견정혈'을 눌러주면 시원해진다. 어깨 지압 전에 뜨거운 물수건을 대 근육을 이완시킨다. 어깨에 손바닥을 대고 엄지손가락으로 견정혈을 주무르듯 누른다. 목이나 어깨뼈를 같이 눌러주면 더욱 좋다.

〈박달나무 한의원 원장〉

기고

김호대

'남은 음식 제로운동' 적극 동참을

환경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하루에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가 1만5000t에 이르고,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18조원에 달하며, 이를 발생원별로 분류했을 때 외식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27%로 약 5조원에 달한다고 한다.

과거 정부에서는 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으로 인한 국가적인 낭비를 방지하고자 지난 1984년에 주메뉴와 반찬을 주문에 따라 제공하는 '주문식단제'를 실시했고, 1988년에는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주문식단제'를 '위생식단제'로 바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였다.

또 1992년 4월 보건복지부는 음식점에서의 과소비 억제 및 위생 수준 향상을 골자로 하는 '국민 식생활 문화 개선'을 국민 운동 차원으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좋은 식단제'를 실시하였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에 민간단체인 (사)한국음식업중앙회(회장 남상만)가 중심이 되어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국민적인 공감과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며 '남은 음식 제로운동'이라는 범국민운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발대식을 가지고 올해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남은 음식 제로운동'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중장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전국 24만 개의 한식업소를 대상으로 올해 6만 개의 한식업소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뜻을 같이해 광주에서도 (사)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를 필두로 지난 7월 초에 서울을 비롯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음식 문화개선 범국민실천결의대회' 행사를 개최하고 '남은 음식 제로운동'의 의미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현시대의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 해결에 일조하고 남은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인한 국민건강에 미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문제는 반드시 성공해야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에서는 '남은 음식 제로운동'을 잘 실천하도록 음식업주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도·계몽과 위생교육을 통해 동 운동을 지속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며, 참여 업소에는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찬기, 시설지원비 융자 등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 광주시와 5개 자치구에 협조 요청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내 음식점을 찾는 고객에게도 공익광고(TV·신문·지하철 동영상 등), 리플렛, 스티커 등의 방법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운동이 활성화되어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에 광주시민 모두가 이런 좋은 취지를 이해해 주고 다 같이 자발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한국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장〉

無等鼓

CEO 리스크

신한금융지주 이사회가 지난 15일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라응찬 신한금융회장과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신 사장 해임안을 밀어붙였으나 일단 실패한 모양새다.

이 행장이 지난달 말 신 사장을 횡령·배임혐의로 고소하며 시작된 경영진 내분으로 총 자산 313조원에 이르는 신한금융의 기업가치는 크게 훼손되고 있다. 한 때 주식 시가 총액이 1조9000억원이나 증발했다. 신한은행 측이 주장하는 신 사장의 불법대출 총액 950억원의 20배에 달하는 주식가치다.

투자자도 참지 못해 조치에 나섰다. 최대주주인 재일동포 4명은 이 행장이 은행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도 않고 신 사장을 고소하고 이를 공개해 회사 신인도와 주가를 떨어뜨렸다며 이 행장 해임 청구소송을 냈다. 라 회장도 금융실명제법 위반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투자자들의 돈을 불려줘야 할 책임을 진 CEO들이 반대로 손해를 끼쳐 거액을 잃게 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른바 'CEO 리스크'다. 우리나라에선 정치적 외압 등에 자유롭지 못한 금융환경의 후진성, 내부 감시체제가 작동되지 않는 기업지배구조, 후계양성 체제의 불투명성 등 때문에 이런 일이 잦다. 신한 내분 사태에선 이런 악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실세 3인방'이 각각 호남과 영남 정치인들을 상대하며 사업 확장을 해왔다는 것은 업계에 잘 알려진 얘기다. 부정비리를 감시하도록 투입된 사외이사는 거수기 이상의 역할을 못하고 있고, '30년 형제애'라고 자랑하던 팀워크도 후계자 다툼에선 거추장스런 껍데기에 불과했다.

투자자들로선 어물전을 '고양이'에게 맡긴 꼴이다. 고양이는 신한은행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무리한 사업확장과 경영권 다툼, 도덕적인 문제, 부적절한 언행으로 회사를 망치는 CEO들이 숱하다.

/김주정 여론매체부장 jjnews@

'색소 과자' 어린이 아토피 유발 주범이라니 걱정

얼마 전에 TV프로에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자가 아토피 피부염을 유발시킨다는 내용이 나왔다. 과자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인데 아토피 피부염을 일으키는 주범이라니 아이를 키우는 주부 입장에선 무얼 먹여야 할지 난감할 뿐이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이렇게 흔한 것은 먹을거리 때문이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상가에 진열된 알록달록한 색소가 첨가된 과자들이 어린이들이 앓고 있는 아토피 증세의 주범일 수 있다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제과업계에선 과자가 아토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방송내용이 다소 무리한 해석이라 주장하며 과자가 아토피 증세의 원인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다.

제과업계는 보도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식용색소 같은 게 인체에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 등을 면밀히 실험해서 주부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들에게 먹일 수 있게 제품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

▲최순옥·광주시 북구 운정동

등산객 가장 야생화 불법 채취행위 삼가야

최근에 산을 오르내리다가 전국의 깊은 산자락 일대에 자생하는 야생화 군락지가 불법채취꾼들에 의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야생화를 취급하는 전문업자들이 아예 싹쓸이로 뽑아가 남아나는 게 없을 정도이다.

요즘 각 가정에서는 야생초 키우는 붐이 일고 있다고 들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돈이 좀 된다 싶으니까 불법 채취행위가 극성스럽게 발생하는 것이다. 또 이런 불법 채취꾼들이 등산객으로 가장해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시간대에 현장에 나타나 채취해 간다면 적발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런 범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그럴 경우 희귀종을 비롯한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야생화들이 그 자취를 감추게 될지도 모른다.

당국은 산불감시원들을 동원해서라도 야생화 불법채취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이다. 또 등산객 모두가 스스로 야생화 불법채취자들을 감시하는 경찰관이 되어야겠다.

불법 현장을 목격한 사람들은 그냥 지나치지 말고 먼저 채취행위를 막아야 하며, 그 다음으로 그들이 타고 온 차량번호를 적어서 관할 경찰지구대 등에 즉각 알려주는 등 고발정신을 십분 발휘해주어야 할 것이다.

▲장영환·광주시 동구 충장로2가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宅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